

8강 한국인의 일생 III

■ 학습개요

- 회갑의 의의와 특성
- 회갑 상차림과 회갑연, 회혼례의 특징
- 상례의 의례적 특징과 시대적 변천과정
- 유교식 상례의 과정
- 상례의 상징과 구조에

1. 회갑

1) 회갑의 의의

(1) 새로 시작하는 삶

- 회갑연(回甲年) :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61세가 되는 해. 환갑(還甲) 또는 화갑(華甲), 주갑(周甲)이라고도 함.
- 이날 마련하는 회갑잔치를 수연(壽宴)이라고 함.

(2) 살아 있는 조상에 대한 산제사

- 조선시대에 평균수명이 35세 정도였기 때문에 회갑을 넘기는 일은 크게 복을 받은 일.
- 한 사람이 조상이 되는 시작은 회갑부터라고 여김.

(3) 죽음을 준비하는 은퇴기

- 회갑부터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 죽음 이후에도 자손과 끊임없이 교류하는 문화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노인들은 죽음을 단절로 여기기보다는 생의 한 과정으로 인식 → 회갑을 지낸 노인은 죽음을 준비.

(4) 돌아가신 부모의 회갑 날 제사

- 돌아가신 부모의 회갑 날이 되면 친척들이 모여 제사를 모시고 추모함.

(5) 회갑 맞은 아이, 색동옷 입고 부모님께 헌수올린다.

- 회갑 일을 맞이한 주인공의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별도로 큰상과 함께 돌상을 차림. → 부모가 볼 때, 회갑을 맞는 아들이지만 부모에게는 마치 돌맞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에서 돌상을 차림.
- 이를 오색반란지경(五色班爛之慶)이라 해서, 회갑인 당사자가 어린애처럼 색동저고리를 입기도 하며, 먼저 부모에게 헌수(獻壽)를 한 연후에 회갑 상을 받음.

2) 회갑상

(1) 큰상 차리기

- 회갑잔치에는 큰상을 차림.
- 회갑상은 안방이나 대청에 진설되는데 병풍을 치고 회갑상이 차려지고, 병풍과 회갑상 사이에 회갑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앉을 자리를 마련함.

(2) 제삿상과 다름없는 상차림

- 큰상의 진설은 풍성하게 차려놓는데 제삿상[祭床]과 다름없이 차림.
- 회갑상은 바라보는 상이라는 의미에서 망상(望床)이라고 하고, 상차림을 상을 꾀다라고 함.

3) 회갑잔치

(1) 현수배례

- 회갑 상 가까이 나아가 큰절을 하며 부모에게 술잔을 올리고 다시 큰절을 함.
- 인사는 직계의 경우 남자는 재배(再拜)를 하고 여자는 사배(四拜)를 하는데 이는 산제사라하여 제사 때 인사와 같이 함.
- 다음에는 손자, 손녀들이 연령순, 향렬 순으로 각각 술을 올리고 큰절을 함.
- 자손들의 현수가 끝나면 혈연관계에 있는 일가친척이 연령순, 향렬 순으로 각각 술을 올리고 큰절을 함. 그리고 타성의 연하자와 손아래 사람들에게 하례를 받음.

(2) 손님접대와 부조

- 잔칫집에서는 하객들에게 떡과 술, 과일과 특별음식으로 차린 상을 제공하여 대접.
- 잔칫날에는 생면부지의 모르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과객까지도 맞아들어 주식을 대접.
- 회갑잔치에 하는 부조는, 자식들이나 친척들이 주로 의복·신발 등을 하며, 동네사람들은 고가·묵·감주·술·계란·은행·호두·두부·담배 등 잔치에 필요한 음식이나 그릇 등을 보내옴.

(3) 현대의 회갑잔치

- 요즘은 평균수명이 길어져 회갑의 의미가 각별하지 않음.
-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회갑잔치를 성대하게 베풀.
- 특히 최근에는 주거환경이 아파트 생활로 바뀌면서 회갑을 치러 주는 대형 음식점 등장.
- 회갑잔치는 고정된 날짜가 있지만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며칠씩 미루기도 하고 앞당기기도 함.

4) 진갑, 고희잔치

- 진갑(進甲) : 회갑을 지낸 다음 해.
- 진갑은 앞으로 새로운 갑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가는 첫 번째 생일로 진갑잔치는 회갑잔치만큼 성대한 잔치는 아니나, 생일잔치보다는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하객의 축하를 받음.
- 고희잔치 : 70세의 생일.
- 팔순 : 80세의 생일. 그
- 희수(喜壽) : 77세의 생일
- 미수(米壽) : 88세의 생일

- 망백(望百) : 91세의 생일
- 그러나 이것은 일본의 민속을 흉내 낸 것이지 본래 우리나라의 풍습과는 다름.

5) 회혼례

- 회혼례 : 회갑 후에 치러지는 큰 잔치.
- 결혼한 지 60년 후의 결혼한 날짜에 행해짐.
- 남자는 사모관대를 입어 신랑같이 꾸미고, 여자는 원삼족두리를 착용하고 화장하며,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어 신부처럼 차리고 옛날에 지냈던 혼인예식을 되풀이함.
- 자손과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노부부가 혼례 차림을 하고서, 혼례의식을 재현하고 자손들로부터 헌수(獻壽)를 받는 것이 이 잔치의 중심을 이룸.
- 자손이나 직계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은 자가 있으면 회혼례잔치를 안함.

2. 상례

1) 상례의 의례적 특징

(1) 죽음의 사회적 의미가 담긴 상례

- 상례 : 죽음에 따르는 의례.
- 출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죽음의 의례가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
- 3일장이나 5일장, 7일장 등으로 여러 날을 거쳐 매일 복잡한 의식절차를 거침 → 죽음의 의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
- 죽음은 한 개인의 일일 수가 없고,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이 죽은 것을 의미.
- 삶을 마감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의례이므로 당사자가 의례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

(2) 상장의례의 의미

-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의례의 일정한 과정을 겪게 됨.
- 육신이 죽어 썩는 것을 사(死)라 하고, 사람 노릇이 끝나는 것을 종(終)이라 함.
- 상례는 상중에 행하는 모든 의례로서 사자에 대한 비애의 표현, 관에 넣는 절차의 유무, 집으로부터 시체를 옮기는 방식, 시신의 처리법, 부장품의 매장 여부, 상복제도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이 포함됨.
- 장례는 상례의 한 절차로서 시체의 처리방법, 즉 매장에 관련되는 예절을 뜻하여 따로 장의(葬儀)라고 분리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례에 포함시켜 상장이라고 함.

2) 상례의 변천

(1) 삼국이전 및 삼국시대의 상장의례

- 삼국시대 이전의 상례는 장례에 대한 약간의 기록과, 고분 발굴을 통해 추론할 수 있음.
- 부여(夫餘)의 세골장(洗骨葬)과 순장(殉葬)의 풍습, 동옥저의 풍습, 고구려의 풍습 등.
- 신라의 장속은 관을 사용하여 염을 하고 장사를 지냈는데, 분릉을 설치하였고, 또는 불

교의 예에 따라 화장을 하여 뼈를 골호 등에 보관하기도 하고, 뼈가루를 바다에 뿌리기도 함. → 지증왕 대에 상복법을 제정하여 반포.

- 신라는 시체를 땅에 매장하는 토장을 실시하다가 법흥왕 이후 화장과 토장을 병행함.

(2) 고려시대의 상장의례

- 고려시대 건국 초기의 상례는 신라 예제를 답습하는 상태.
- 불교의 융성으로 화장법 계승됨.
- 고려의 불교식 장법은 ① 사망 ② 불사(佛寺) 부근에서의 화장 ③ 습골(뼈를 추리는 것) ④ 권안(權安: 권빈이라 함. 일정 기간 동안 절에 유골을 안치하는 것) ⑤ 매장의 과정을 거침.
- 유교도입에 따라 성종은 오복제도를 반포 → 그러나 서민들 사이에는 유교식으로 전환될 수 없었음.
- 주자학이 들어오고 공양왕에 이르러 불교의 상례인 다비법을 금지하였으나 민간에서는 불교 및 무속적인 상례가 관행됨.
- 고려 말에는 불교식 상장이 일반적.

(3) 조선시대의 상장례

① 유교식 상장례의 성립과 시행

- 상장례는 사회질서의 명분과 교화의 수단으로 작용하여 조선시대 초기에 예제(禮制)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침.
- 유교식 상장은 경국대전이 편찬될 때까지도 잘 이행되지 않아 일반 백성들은 무속과 불교가 융해된 무불식 상장을 고수하여 이원화된 상장제가 혼재함.
- 국가가 강력하게 예의 실천을 장려하여 서서히 유교식 상장제로 정비되어 그 결과 석실묘에서 주자가례에 근거를 둔 회격묘(灰隔墓)로 교체되어 조선식의 묘제로 정착됨.

② 조선시대의 무불식(巫佛式) 상장의 유풍과 화장

- 진사대부들이 강력하게 추진한 주자가례 상장례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에서는 여전히 민간신앙과 불교 요소가 강한 상장례를 행함.
- 위호(衛護)풍습 : 조부모나 부모의 혼을 무당집으로 부르고 혹은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을 그려 모시기도 하며, 노비를 무당 집에 바치고 조상신을 무당집에 가져가서 제사지내는 것. 이것은 조상신을 무당집에 위탁하여 제사를 올리어 음덕을 받고자 한 것인데, 사대부들이 집안에 가묘를 두고 봉사하는 것과 같음. → 무속과 유교제도가 융해된 조상숭배 형태.
- 죽은 지 3일과 7일째에는 무당이 새 혼령이 내려와 지난 일과 미래를 말해준다고 하여 으레 술과 떡을 준비하여 무당집에 가기도 함. 이러한 무속적 상례는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어 주자가례에 의한 상장보다는 민간신앙적인 무불식 상장이 민간에서 성행.

③ 화장에 대한 금지 조치

- 조선 초기 상장은 유교식 장법의 토장과, 이에 상반되는 불교식 화장법과 망자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재를 올리는 행사가 병존함.

- 화장법은 불교식 장법으로 불교의 융성과 함께 신라 말과 고려시대에 성행.
- 공양왕 원년에 처음으로 화장을 금지함.
- 불교식 화장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계속 금지.
- 화장 금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계속 화장이 시행됨.
- 조선중기 이후로 넘어 오면서 주자가례의 이행 강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많은 예서들이 편찬되어 보급되면서 일반에게 영향을 끼쳐 유교식 상장의 토착됨.

3) 유교식 상례의 절차

(1) 임종전후의 의례

① 천거정침(遷居正寢)과 임종 : 안방에 모시기

- 『가례』에는 천거정침(遷居正寢)이라 하여 남자는 사랑방에, 여자는 안방에 옮겨 임종하도록 하는 것을 일컬음. □□사람 안 죽은 아랫목 없다□□는 옛말은 죽음의 일상성을 뜻하는 동시에 천거정침의례의 모습을 반영함.
- 안방 아랫목으로 환자를 옮겨서 준비된 이부자리에 눕힌 다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힘.
- 임종(臨終) : 이미 천거정침 단계에 이르면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과 가까운 가족들에게 사정을 알려서 급히 모이게 하고 자식들은 환자의 손발을 잡고 숨이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②속광(屬纊)

- 임종이 임박한 듯이 보이면 환자의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북쪽 문 옆에 눕히고 말을 삼가고 조용히 함.
- 그리고 환자의 코와 입 사이, 즉 인중(人中)에 새 숨을 놓아서 그 움직임 여부를 통해 죽음을 확인.
- 속광(屬纊) : 숨으로 죽음을 확인하는 일 또는 속광(屬紼)이라고 함.
- 죽음이 확인되면 가족들은 흰 옷으로 갈아입고 몸에 지녔던 비녀와 반지 등을 빼놓은 뒤에 머리를 풀고 가슴을 치며 곡을 함. 임종의 자리에 들어갈 때 이미 소복을 하고 금붙이를 빼 둔 경우는 임종이 확인되면 즉시 곡을 하기도 함.

③고복(梟復) : 이름을 세 번 부르기

- 임종이 확인되고 곡소리가 나면 주검을 대면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죽은 이가 평소에 입던 두루마기나 적삼을 들고 마당에 나가서 지붕을 향해 옷을 흔듬.
- 고복(梟復) : 이름을 부르며 복(復)을 세 번 외침.
- 고복은 주검을 떠나는 영혼을 불러다가 망자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한 의례로, 혼을 부른다는 뜻에서 초혼(招魂)이라고도 함.

④저승사자·사자상·사자밥

- 죽음은 이승에서 주검과 상주(喪主)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고, 저승에는 영혼과 저승사자를 관념적으로 그려냄. 현실적으로 죽음은 숨을 거두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관념적으로 죽음이란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으로 인식.
- 그러나 영혼이 자의적으로 육신을 떠난다고는 믿지 않음 → 저승사자가 와서 강제로 데

려간다고 여김.

- 저승사자를 잘 대접하면 죽은 이의 저승길이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저승사자를 위한 상을 차림. → 이때 차리는 상을 사자상이라 하고, 사자상에 차린 밥을 사자밥이라 함.

⑤ 수시(收屍) : 주검 거두기

- 수시 : 죽은 이의 몸을 주검으로서 다루는 첫 절차로 이 때부터 상주는 죄인이 되어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에 흰 옷을 입음. 남자 상주는 두루마기를 입되 아버지의 상을 당했을 때는 왼쪽 소매를, 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때에는 오른쪽 소매를 꿇지 않고 입음. → 좌단우단(左袒右袒)이라 함.
- 주상 외에 호상(護喪)을 세움.
- 호상은 상주의 가까운 일가 어른들 가운데 상례에 밝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뽑음.
- 호상은 각기 의례의 진행과 축문 담당, 손님접대, 기록 담당, 경리 출납 등을 맡아서 일을 분담하여 도움.

(2) 주검에 대한 의례

① 습(襲), 습의(襲衣), 반함(飯含) : 목욕시켜 옷입히기

- 습(襲) : 주검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힘.
- 시자(侍者) : 습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남자의 습은 남자가, 여자의 습은 여자가 하는 것이 관례임.

② 소렴(小殮)과 대렴(大殮): 주검 묶기

- 영(殮)에는 소렴과 대렴이 있음.
- 소렴 : 습의에 이어 다른 의복들을 입히고 소렴포로 주검을 맨. 소렴포를 이용하여 주검을 가로 세로로 감싸서 묶는데, 가로로 묶을 때는 먼저 발끝에서 위로 세 매듭을 차례로 묶고, 다시 머리 쪽부터 차례로 내려오며 세 매듭을 묶은 다음, 가운데는 가장 나중에 묶어서 일곱 매듭을 짐. 이렇게 소렴이 끝나면 한지로 고깔을 만들어 묶은 매듭마다 끼워 둠, 고깔은 망자가 저승의 열 두 대문을 지날 때 문지기에게 씌워 주게 하기 위한 것임.
- 대렴 : 입관을 위해 주검을 베로 감아서 매듭을 짓는 것. 소렴을 행한 이튿날 곧 죽은 지 사흘째가 되는 날에 하는 것이나 요즘은 주로 3일장을 하므로 소렴에 이어 곧장 대렴을 하는 것이 관행이 됨.

③ 입관(入棺)

- 입관 : 주검을 관에 넣는 것.
- 입관 방식은 매장 방식에 따라 다르나 입관 상태로 묻지 않고 주검을 관에서 꺼내어 매장하는 경우에는 관에서 주검을 들어 낼 수 있는 넉넉한 길이의 베를 관의 아래 위에 각각 가로질러 깔고 입관을 함.
- 입관을 할 때에는 관 위에 팽팽하게 걸쳐놓은 흙이불 위에 주검을 놓고서 서서히 이를 낮추어, 주검이 관 바닥에 안치되도록 한 다음 주검과 관 벽 사이의 빈 곳을 망자가 입던 옷이나 짚, 종이 등으로 채움. → 주검을 묘지로 옮겨 갈 때 움직이거나 한 편으로

쏟리지 않게 하기 위함.

- 흠이불을 위에 덮고 관 뚜껑을 덮은 다음 나무뿔을 침.
- 입관의 절차는 산 자와 죽은 자가 처음으로 격리되는 순간이므로 가족들은 곡을 함.
- 입관이 끝나면 관 위에 머리 쪽과 발쪽을 표시해 두고 명정(銘旌)을 덮어두고 종이와 짚을 섞어 왼쪽으로 끈 줄로 관을 묶어서 운구할 때 쉽게 손잡이로 쓸 수 있도록 함.

(3) 상주를 중심으로 한 의례

① 혼백 모시기

- 혼백 또는 영좌 : 교의(交椅)에 영혼을 상징하는 혼백이나 사진을 모시고 그 앞에 쟈상(祭床)을 차려 두고 영좌(靈座)를 설치함.

② 성복(成服): 상복입기

- 성복 :상주와 상주를 포함한 산 자들이 망자와의 가족 관계에 따라 상복을 입음.
- 성복을 하고 나서 처음 올리는 제사를 성복제(成服祭)라 하는데 성복제가 끝나면 정식으로 문상(問喪)을 받기 시작함.
- 오복제 : 상복의 종류로 참취(斬衰), 제취(齋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媵麻)가 있음.
- 같은 복이라도 부모, 부부, 장자 등의 가족관계에 따라 정복(正服), 가복(加服), 의복(義服) 등으로 구분.

(4) 장례

① 장례준비

- 집안에서 운구를 위한 상여 준비를 함.
- 묘 터에서 하는 산역은 일가 어른들이 맡아서 하지만 상여를 정비하는 일은 상두계(향도계)원들이 담당.
- 상두계 : 마을과 상여의 규모에 따라 20, 30가구 안팎으로 이루어지는데, 상여의 운반 및 무덤 터다지기, 묘 쓰기 등 장례에 관계되는 일을 두레 형식으로 하는 공동 조직임.

② 발인

- 발인 : 영결식이라고도 하며 주검이 집에서 나갈 때 지내는 마지막 제사. 지역과 가문에 따라서 발인제와 영결제를 별도로 지내는 경우도 있음.
- 발인을 위해 방에 있는 관을 들어내고 상주들은 관을 들고 방의 네 구석을 향해 관을 세 번씩 올렸다 내렸다 하여 인사를 하면서 문을 나섬.
- 문 밖의 덧돌 앞에 바가지를 얹어 두면 문지방을 넘으며, 관의 앞부분으로 이것을 눌러서 깨뜨림. → 문지방을 자르거나 바가지를 깨는 것은 죽은 이가 다시 문지방을 넘어 집안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일종의 양방임.
- 양 밥 : 민간신앙이나 속신에 근거를 두고 하는 주술적·종교적 처방.
- 관을 내어 오면 상여 안에 안치를 한 후 상여 앞에 상을 차려 두고 마지막 제사를 올림.
- 상주들은 술 한 잔을 올리고 한 번만 절을 함. → 발인제라 함.

③ 상여행렬과 장례

- 영여 : 죽은 이의 영혼을 운반하는 가마.
- 상여 : 주검을 운반하는 가마.
- 장례 행렬에서 영여가 상여의 앞에 서는 것을 보면 영혼이 육신에 비해 우선하는 가치 부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영육(靈肉)을 분리하고 저승과 이승을 나누어 인식하는 이원적 세계관.

④ 방상씨탈과 희광이춤

- 상여 행렬 맨 앞에 방상씨(方相氏)탈이 서기도함.
- 방상씨는 황금색을 네 개나 가진 귀신 쫓는 탈로써, 두 사람이 이 탈을 쓰고 긴 칼이나 창과 방패를 들고 앞장을 서서 칼을 휘둘러 잡귀를 몰아내는 구실을 함.
- 희광이춤 : 진도 지방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일컫는 말로 희광이는 사형집행인인 망나니의 다른 이름임. → 행세하는 집안의 어른이 죽으면 죽은 이가 매장되기 전에 평소에 원한을 사서 죽은 귀신들이 공격할 것에 대비하여 이들을 얼씬 못하도록 희광이춤을 추게 함.

⑤ 산신제, 개토제

- 산역꾼들이 묘 터를 잡기 전에 산신제를 올리는데 이는 산신에게 미리 제사를 올리지 않고 산역을 하게 되면 산신의 노여움을 사서 부정을 탄다고 여기기 때문임.
- 별도로 개토제(開土祭)를 드릴 경우에는 연장으로 땅을 파기 전에 묘를 쓸 곳에다 제사를 올림.
- 이들 제의는 모두 산을 신성시 여긴 나머지 함부로 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에 근거함.
- 제의가 끝나면 묘지 주변의 나무들을 밑동까지 깨끗하게 베어내고 광중 부근의 나무들은 그 뿌리까지 캐고는 관을 안치할 광중을 넓게 파내려 가다가 관을 들여놓을 안쪽에는 관이 들어가기에 알맞을 정도로 좁게 팜.

⑥ 하 관

- 하관(下棺)을 할 때에는 이를 아무나 봐서는 안 됨.
- 하관을 할 때에는 집안에 따라 관 채로 광중에 안치하는 수도 있고, 관에서 주검을 꺼내어 안치할 수 있음.
- 주검의 머리가 북쪽(산봉우리 쪽)으로, 발이 남쪽(산기슭 쪽)으로 가도록 하고 좌향에 맞도록 상하 좌우가 반듯하게 안치되면, 관 또는 주검과 광중 사이를 흙으로 메우고 이어서 명정을 관 위에 덮고 운(雲)자와 아(亞)자를 쓴 패도 양쪽에 끼워 둠.
- 관을 해체하고 주검을 하관하는 경우에는 동천개라는 나무를 광중에 가로로 걸쳐 덮음.
- 동천개는 참나무와 버드나무, 대나무를 일정하게 자르고 편편하게 깎아서 흙수가 되게 준비해 두었다가 아래서부터 위로 덮음.

⑦ 평토제, 달구소리

- 실토(實土) : 관 위에 흙을 덮는 절차.
- 상주가 직접 삼으로 흙을 떠서 관 위에 뿌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산역꾼들이 떠 주는 흙을 상복 자락에 받아 담아서 관의 윗부분과 가운데 그리고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세 곳에

나누어 뿌림.

- 평토제 : 산에서 올리는 마지막 제사로 제물을 특히 많이 차리는 데 말사위가 담당하도록 관례화 됨. 이 때 쓴 제물은 산역꾼과 상두꾼 및 조문객들이 현장에서 고루 나누어 음복함.
- 평토제가 끝나면 상주는 영좌의 신주와 혼백상자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옴. 혼이 집으로 되돌아온다고 하여 이를 반혼이라 함.
- 평토제 뒤에 반혼이 이루어지면 묘터의 산역꾼과 상두꾼들은 흙을 다져가며 봉분 만드는 일을 함. 무덤 터다지는 일을 달구 짚는다고도 하며 석회로 광증을 다질 때 회다진다고도 함.

(5) 장례 후 의례

①반곡, 삼우제

- 반곡 : 묘지에서 반혼한 혼백이 영여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을 지키던 여성들이 나와 맞이하며 곡을 함. 반곡하는 가운데 혼백을 빈소의 영좌에 모심.
- 빈소는 지역에 따라 빈실(殯室), 또는 상청(喪廳), 제청(祭廳), 영실(靈室)이라고 함.
- 대청이나 죽은 이가 거처하던 사랑에 제상을 차리고 신주와 혼백상자를 모셔 둬.
- 죽은 지 3년이 되는 해 대상을 마치고 탈상할 때까지 아침저녁으로 음식상을 차려 올리는 한편 조문객의 문상을 받음.
- 상식(上食) : 상청에 음식 올리는 일.
- 삼우제 : 출상 당일부터 3일째 되는 날까지 세 차례 제사를 지내는 것.
- 우제 : 주검을 묘지에 묻어 두었기 때문에 주검을 떠난 영혼이 방황할 것을 우려하여 편안하게 빈소에 안착하도록 하는 제사로 초우제는 반혼하는 즉시 올리는데, 반혼이 늦었을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올릴 때 겸하여 지내기도 함.
- 삼우제를 지내고서는 반드시 성묘를 감.

② 곡소리를 거두는 졸곡제

- 초상 뒤 3일까지 삼우제를 마친 뒤에 3개월 안에 날을 잡아서 다시 졸곡제를 지냄.
- 갑, 병, 무, 경, 임에 해당되는 날을 택함.
- 졸곡제 : 곡을 그치는 제사로 졸곡제 뒤에는 수시로 하던 곡을 그치고 아침, 저녁으로 상식할 때만 곡을 함.

③소상(小祥)과 대상(大祥)

- 졸곡제 뒤에 다시 1년 주기의 제사인 소상과 2년 주기의 제사인 대상이 있음.
- 초상(初喪)에서부터 소, 대상의 의례를 흔히 삼년상이라고 함.
- 초상 이듬해의 기일에 소상을 치르고 그 다음의 기일에 대상을 치르는 데 제사의 절차는 기일의 전날 저녁에 상식을 하고 곡을 한 다음 손님들의 조문을 받고 이튿날 새벽에 본격적인 소, 대상 제사를 올림.
- 전통적으로 대상을 마치는 해에 탈상을 함.

3) 상례의 상징과 구조

(1) 상례에 나타난 산 자의 바람

- 장례는 죽음의 의례이자 죽은 이에 관한 의례인 동시에 상례는 삶에 관련된 산 자의 의례임.
- 실제로 저승으로 가는 존재는 주검이 아니라 영혼인데 수시를 하면서 마치 주검이 저승에 들어가는 것처럼 양식과 선물을 준비를 하는 반면 영혼은 무덤에서 반혼하여 빈소에 모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혼이 멀리 떠날 것처럼 사자상을 차리는데 이러한 모순은 영육의 분리를 관념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주검을 근거로 하여 영혼의 세계를 떠올리기 때문임.

(2) 상례의 문화복합

- 조선후기 상장에 대한 기록이 오늘의 풍습과 연관됨.
- 실제 관행은 유교의 효 문화와 거리가 있음.
- 상례는 산 자가 기대하는 몇 가지 소망 곧 죽은 조령에게 바라는 희망과 자기 후손에게 거는 기대 그리고 산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명 의지가 서로 교차되면서 죽음의 의식을 통해 반영되고 있음.

■ 정리해봅시다.

1. 회혼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출문제>

☞ 다음 중 회혼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7'출제)

- ① 회혼례상은 망상(望床)이라고도 불린다.
- ② 부부 금술을 기원하는 의미로, 만인병이라는 떡을 돌린다.
- ③ 혼인 후 50주년을 맞이하여 결혼한 날에 올리는 혼인의례이다.
- ④ 회혼례가 끝나면 노부부는 아들이 올리는 현주를 받는다.

정답 : ④

2. 유교식 장례절차 중 주검에 대한 의례를 단계별로 설명해 보세요.

① 습, 습의, 반향 :

② 소렴과 대렴 :

③ 입관 :

3. 장례 후 의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① 반곡, 삼우제 :

② 졸곡제 :

③ 소상과 대상 :

9강 한국인의 일생 IV

■ 강의목표

- 제례의 역사적 변천
- 우리나라 조상숭배의 특징
- 조상제사 관행의 종류별 특징
- 제례의 형식과 절차
- 제례의 미래상

1. 제례

- 제사 :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서로 통하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마당.
- 제례 : 제사의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형식.

1) 제례의 역사적 변천

- 유교식 제례에서 제사의 의미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 행하던 효행의 연속.
- 제사라는 의식을 통하여 가족, 친족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
- 제사에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거행하는 기제사, 명절날 거행하는 차례, 먼 선조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거행하는 시제(時祭), 한식이나 추석 때의 성묘 등이 있음.

(1) 고려의 불교와 제사

- 고려의 지배적인 종교인 불교는 왕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백성들이 의지하였고, 정치·사회·문화에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침.
- 고려시대에는 사람이 사망하면 시신을 화장한 뒤, 뼈를 수습하여 작은 관에 넣어 매장하거나, 작은 단지에 담아 절에 보관함.
- 제사 또한 사찰에서 올리는 재(齋)의 형태로 행해졌고, 조상의 초상화를 그려 절에 영당을 마련하여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재를 올림.
- 자손들은 조상을 위하여 사찰, 불탑, 불상, 불종 등을 건립하고 재산을 사찰에 기부함.
- 불교적 전통이 강한 고려사회는 혈족관념, 혈통의식이 우세함.

(2) 주자가례의 보급과 우리나라식 변형

- 유교 이념을 표방한 조선 건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주자가례를 보급 권장함으로써, 모든 의식들을 유교식으로 대체함.
- 주자가례 제사는 실제적인 보급 과정에서 완전하게 적용되지는 못 함. → 그 결과 유교식 제례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방식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조선전기의 독특한 제사형태가 생성됨. → 기제를 중요시하고, 윤회봉사, 외손봉사를 함.

(3) 조선전기의 제사의 특징

① 부모제사의 중시

- 사시제 : 주자가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제사로 사계절의 중간 달(음력 2, 5, 8, 11월)에 4대조까지의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임.
- 제사의 대상을 부모에 한정하고, 때로는 형제자매를 배향하는 등 가까운 지친을 중심으로 함.
- 나라의 법으로 일반 백성들은 부모의 기일제만을 허용하고, 조부모 이상의 기일제는 법으로 금지함.
- 생취일제 : 조선전기에 이루어진 관행으로 돌아가신 부모의 생신 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

② 유회봉사

- 조선 전기, 혈족 관념이 재산상속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아들 딸 구분 없이 균등하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균분상속이 행해짐.
- 위의 내용을 보면 담당자가 제수를 마련하고 제사를 차리는 등의 모든 준비를 하며 제사를 신주가 아니라 지방을 사용함. → 제사 장소와 제수 담당자가 매년 바뀜.

③ 외손봉사

- 딸도 부모의 제사에 참여하고 직접 담당하였으며, 딸과 사위가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는 그들의 자식, 즉 외손이 외조부모의 제사를 담당함.
- 아들이 없었을 경우에도, 양자를 세우는 것보다는 딸·외손이 재산을 상속받아 제사를 담당하는 외손봉사가 널리 행함.

(4) 조선후기 제사 방식의 변화

-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통치이념으로 채택됨에 따라 주자가례는 국가적으로 권장하게 되면서 조상에 대한 제례가 가장 발달함.
- 우리나라의 조상숭배 의례는 관습적인 제사로 기제와 명절의 차례가 중시됨.
- 현대의 제례는 대부분 유교 예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많이 간소화되었고, 기독교의 유입과 일제의 의례준칙 강요, 정부가 시행한 가정의례준칙 등 전통 예법의 모습을 변화시킴.

2) 우리나라 조상숭배의 특징

(1) 삶의 과정으로서의 죽음관

- 환갑 의례 : 큰아들 집에서 사는 부모 세대가 세월이 흐르면 살림권을 아들 부부에게 하나 둘씩 넘기면서 사랑방으로 은퇴하는데 그 의식을 의미함.
- 상청(喪廳)의 단계 : 죽었지만 살아 있는 노인 대접을 받는 것.
- 제사 기간 : 약 1백 년 동안 계속되는데 이것은 1대를 25년으로 잡아 4대(고조)가 될 때까지 제사를 받기 때문임.
- 시제 단계 : 종손으로부터 4대조 이상이 되면 사당의 위패는 장손 집을 떠나 묘에 묻히면서 먼 조상이 되는데 시제 대상이 된 조상은 1년에 한 번씩, 대개 음력 10월이나 3월에 그 마을의 문중 자손들이 묘에 찾아와 제례를 올림.
- 한국에서의 죽음은 갑자기 일어나는 단절의 현상이 아니며 환갑부터 준비하는 과정임.

(2) 조상과 자손과의 관계

- 산 사람의 집을 양택(陽宅)이라 하고, 죽은 사람의 집을 음택(陰宅)이라고 함.
- 죽은 조상들이 산 자손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함.

3) 조상제례의 종류

- 집안 종손의 4대조 이내 조상을 위한 기제
- 설날과 추석에 지내는 차례
- 기제를 지내지 않는 5대 이상의 조상을 위한 묘제 또는 시제
- 명문대가에서 지내는 불천위(不遷位) 제사

(1) 차례

- 차례 : 명절날 집안에 모셔진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로 예서에는 없는 제례임. 명절제 또는 속제라고함.
- 차례에는 계절에 특이한 음식을 준비함.

① 향제자 : 제사 대상

- 기제사의 대상이 되는 조상보다 더 넓은 범위의 조상이 차례의 대상.
- 명절 제사는 설날과 추석날 아침에 종손집에서 그 집의 4대조까지 해당하는 조상을 대상으로 지냄.

② 참가 자손

- 고조를 공동 조상으로 하는 8촌 이내의 당내 친족들.

③ 재산 분배와 의례 책임자

- 재산을 받은 만큼 제사의 책임이 있음.
- 재산 상속 양상은 장남 우대이며 차남 이하는 균등 상속임.

(2) 기제

- 기제 : 기일에 행하는 제사.
- 기일 : 조상이 돌아가신 날.

① 제사 대상

- 기제사의 봉사 대상 : 각 집의 부계 직계 4대조에 해당하는 조상들.

② 참여 자손

- 참여 자손 : 8촌이나 10촌까지임.

③ 제사의 사회적 기능

- 문중원 간의 사회적 결속을 강조하는 의례.

(3) 시제

- 시제 : 음력으로 10월의 정하여진 날에 묘소 앞에 제물을 차리고 올리는 묘제.
- 세일제(歲一祭) : 1년에 한 번 거행하는 것.
- 성묘 : 청명, 한식, 또는 추석에 묘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산소를 손질하는 것.

① 시제 대상 자손과 참가 자손

- 5대조 이상의 조상들.

②시제의 경제적 부담

- 제수를 묘마다 차리고 특히 시제가 외부에 문중의 위세를 과시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듦.

③ 시제의 사회적 기능

- 훌륭한 조상의 자손임을 증명함으로써 향촌 사회의 지배계층으로 인정받음
- 한 곳에 대대로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신용 있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과시하는 것.
- 문중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

(4) 불천위 제사

- 불천위 제사 : 국가에 큰 공을 세웠거나 학덕이 높아서, 그 신위를 영구히 사당에 모시라고 나라에서 허락한 조상의 제사를 일컬음.
- 불천위에 해당되는 조상과 그 배우자는 영구히 매년 기일에 제사를 받음.

<참고> 제례의 구분

1. 대상에 따른 구분

- ① 기제사(忌祭祀) : 조상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
- ② 세일사(歲日祀) : 歲祀 또는 時祀라고도 하는데, 기제사를 받드는 조상보다 윗대의 조상에 대한 제사. 음력 10월 중 택일하여 년 1회 지냄.
- ③ 시조제(始祖祭) : 자기성씨의 시조에 대한 제사. 매년 동지에 지냄.
- ④ 선조제(先祖祭) : 시조의 다음 세대인 제 2세조 이하 기제사를 받들지 않는 대개 5대조까지의 조상인 선조에 대한 제사. 매년 입춘에 지냄.
- ⑤ 이제 : 부모에 대한 제사. 계추(음력 9월)에 지내던 제사로서 요즘에는 지내지 않음.
- ⑥ 상중제사(喪中祭祀) : 부모나 조상이 돌아간 날부터 服을 벗고 길제를 지낼 때까지 亡人에게 지내는 제사로 우제, 졸곡, 부제, 소상, 대상, 담제, 길제 등이 있음.

2. 장소에 따른 구분

- ① 사당제례 : 조상의 위패를 모신 곳에서 지내는 제례.
- ② 정침제례 : 사당에서 신주를 모셔다가 일정한 제사지낼 곳에서 지내는 제사.
- ③ 묘제 : 조상의 묘지에서 지내는 제례.

3. 시기에 의한 구분

- ① 망일제례 :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례로 기제사가 해당됨.
- ② 택일제례 : 제례를 올릴 날을 지정해서 지내는 제사로 세일사는 음력 10월 중으로 정함.
- ③ 명절제례 : 시조의 제례는 동지에, 선조의 제례는 입춘에, 사당의 차례는 명절에 지냄.

4. 시간과 절차 및 복장에 의한 구분

- ① 기제사 : 조상이 돌아가신 날 일몰 후에 지냄. 축문이 있고 술은 세 번 올리는 삼헌(초헌, 아헌, 종헌), 유식, 합문, 계문의 절차가 행해짐. 이때의 복장은 화려한 것은 피하고 남성은 단색 양복이나 도포를, 여성은 옥색 천담복이나 수수하고 정결한 복장을 입음.
- ② 절사 : 정초, 추석날 아침에 지내고 축문을 읽지는 않고 삼헌이 아닌 단헌이 행해지며 유식, 합문, 계문의 절차는 생략. 이때는 화복을 입어도 무방.

4) 제례의 형식과 절차

(1) 신주와 지방(紙榜)

- 신주(神主) : 신주는 지체가 높은 명문가에서나 볼 수 있고 일반 가정에서는 지방을 사용함.
- 지방(紙榜) : 가주(假主)라고 하며 신주가 없는 집에서 제사 때마다 한지에 먹으로 씌.

(2) 사당

- 사당 : 신주를 모신 집.
- 사당은 기제사를 모시는 4대조까지의 신위를 모심.

(3) 진설

- 제수(祭需) : 제사에 사용하는 음식
- 진설 : 제사상에 제찬을 배열하는 것.

(4) 제례의 절차

- ① 신위봉안(神位奉安) : 조상의 신위를 제청(祭廳)에 모심. 신주, 지방 또는 사진으로 모심.
- ② 강신(降神) : 조상의 영혼을 맞아들이는 의식.
- ③ 참신(參神) : 제주와 제관들은 두 번 절하고 신위에 인사하는 의례임.
- ④ 초헌(初獻) : 종묘·문묘 등의 제사를 지낼 때 첫번째 술잔을 올리는 제순(祭順).
- ⑤ 독축(讀祝) : 축문을 읽음.
- ⑥ 아헌(亞獻) :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것.
- ⑦ 종헌(終獻) : 세 번째 잔을 올리는 것.
- ⑧ 삼시(插匙) : 숟가락을 메에 꽂고 젓가락을 바르게 겹쳐 놓음.
- ⑨ 합문(闔門) :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 음식을 물리기 전에 잠시 문을 닫거나 병풍으로 가리어 막는 절차.
- ⑩ 계문(啓門) : 조선시대 지방장관이 중앙에 상주(上奏)하던 일.
- ⑪ 헌다(獻茶) : 국그릇을 내리고 송농을 올려 메를 세 손가락 떠서 송농에 넣은 뒤 모두 엮드리는 절차.

- ⑫ 철시(撤匙) : 송농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고 메 그릇을 덮음.
- ⑬ 사신(辭神) : 신을 보내는 절차로 제주와 일동이 두 번 절함.
- ⑭ 철찬(徹饌) : 지방과 축문을 불사른 뒤 손가락을 거두고 상을 치우는 절차.
- ⑮ 음복(飮福) : 조상이 남겨준 음식을 자손들이 먹는 절차.

5. 제례의 미래상

- 시제는 그 사회적 기능이 약해졌고 앞으로도 더욱 약해질 것.
- 근친들이 같은 마을에서 사는 경우가 드물어짐에 따라 명절 제사는 점차 사라질 전망.
- 기제사 대상 조상은 감정적 유대가 많은 부모와 장인, 장모가 될 것.
- 사위가 처가 부모의 제사에 참여하게 될 것.

■정리해봅시다.

1. 조선 전기의 제사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기출문제>

☞ 다음에 제시한 제사양식은? (08'출제)

자손들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

- ①장자봉사 ②분할봉사 ③외손봉사 ④윤회봉사

정답 : ④

2. 조상제례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 ① 차례 : _____
- ② 기제 : _____
- ③ 시제 : _____
- ④ 불천위 제사 : _____

10강 한국의 세시풍속

▣ 강의목표

- 세시풍속의 의의와 윤달
- 24절기의 종류
- 정월 세시풍속
- 봄철 세시풍속

1. 세시풍속의 의미

- 세시풍속(歲時風俗) : 1년 중 계절에 따라 관습으로 반복되는 생활양식.

1) 24절기

- 고대 중국 주나라 때 지구의 태양 공전 주기를 24등분하여 지구가 15도 돌 때마다 용어를 하나씩 붙여 절기를 완성함으로써 24절기가 처음 고안.
- 24절기는 양력으로 매월 4-8일 사이와 19-23일 사이임.
- 절기와 절기 사이는 대부분 15일이며, 경우에 따라 14일이나 16일이 되기도 함.

(1) 입춘(立春)

- 입춘기간 : 양력 2월 4일 경을 입춘 입기일로 하여 이후 약 15일간
- 입춘 전날을 철의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절분(節分)이라고 하고, 이날 밤을 해넘이라고 부르며, 콩을 방이나 문에 뿌려서 귀신을 쫓고 새해를 맞는다고 함.

(2) 우수(雨水)

- 우수 : 입춘 후 15일 후인 양력 2월 19일경.
- 날씨가 거의 풀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기.

(3) 경칩(驚蟄)

- 양력으로는 3월 6일경부터 춘분(春分:3월 21일경) 전까지.
- 음력으로는 2월절(二月節)이고 계칩(啓蟄)이라고도 함.
- 날씨가 따뜻해서 초목의 싹이 돋고, 동면하던 동물이 땅속에서 깨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뜻.

(4) 춘분(春分)

- 양력 3월 21일경부터 15일간을 말하며 음력으로는 2월중.
- 불교에서는 춘분 전후 7일간을 봄의 피안이라 하여 극락왕생의 시기로 봄.

(5) 청명(淸明)

- 청명일은 한식하루 전이거나 때로는 한식과 같은 날.
- 날이 풀리고 화창하여 일 년 중 식목에 가장 적당한 시기.

(6) 곡우(穀雨)

- 청명과 입하(立夏)의 중간인 4월 20일 경.
- 봄의 마지막 절기로, 음력으로는 삼월 중이지요. 봄비가 내려 백곡(百穀)이 윤택해진다는 뜻.

(7) 입하(立夏)

- 양력 5월 5·6일경으로 음력으로는 4월이며, 곡우(穀雨) 15일 후.
- 여름에 들어섰다고 하여 입하라 함.

(8) 소만(小滿)

- 양력으로는 5월 21일경부터 약 15일 간이며, 음력으로는 4월절임.
- 만물이 점차 성장하여 가득찬다는 의미.

(9) 망종(芒種)

- 6월 6일경에서 하지 전까지의 약 15일간.
- 곡식의 종자를 뿌리기에 적당한 시기라는 뜻.

(10) 하지(夏至)

- 양력 6월 21일경이 시작되는 날이며, 음력으로는 5월중.
- 하지 때는 일 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길므로 한국의 농사력에서는 모 내기가 끝나는 시기이며 장마가 시작되는 때임.

(11) 소서(小暑)

- 양력으로는 7월 7일경에서부터 약 15일 동안이며, 음력으로는 6월절(六月節).
- 이 시기는 장마철로 습도가 높아지고 많은 비가 내림.

(12) 대서(大暑)

- 양력으로는 7월 23일경에 대서가 시작되며, 음력으로는 6월중.
- 이 시기는 중복(中伏)으로, 대개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가장 심해지는 때.

(13) 입추(立秋)

- 양력 8월 8~9일경으로 음력으로는 7월절임.

(14) 처서(處暑)

- 양력 8월 23일경이며, 음력으로는 7월의 중기(中氣).
- 입추가 지나고 백로로 향하는 도중에 있는 절기로, 더위가 물러가는 시기.

(15) 백로(白露)

- 양력으로는 9월 8일경부터 추분(9월 23일경) 전까지이고, 음력으로는 8월절.
- 밤 동안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대기 중의 수증기는 엉겨서 이슬이 되는 시기.

(16) 추분(秋分)

- 양력 9월 23일경부터 한로(寒露) 전까지 15일간. 음력으로는 8월 중.
- 이 시기부터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며, 밤의 길이가 길어짐.

(17) 한로(寒露)

- 양력 10월 8일경이며 음력으로는 9월절.
- 이 시기에 국화전(菊花煎)을 지지고 국화술을 담그는 풍습이 있음.

(18) 상강(霜降)

- 양력 10월 23일경부터 약 15일 동안으로, 음력으로는 9월 중기(中氣).
- 이 시기에는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며, 밤에는 기온이 매우 낮아 수증기가 지표에서 엉겨 서리가 내림.

(19) 입동(立冬)

- 양력 11월 7~8일경으로, 음력으로는 10월절.
- 이 날부터 겨울이라는 뜻에서 입동이라 부르고, 동양에서는 입동 후 3개월(음력 10~12월)을 겨울이라고 하며, 입동에는 늦가을을 지나 낙엽이 쌓이고 찬바람이 불.

(20) 소설(小雪)

- 양력으로는 11월 22일경부터 15일 간이며, 음력으로는 10월 중기(中氣).
- 이 시기에는 첫겨울의 징후가 보임.

(21) 대설(大雪)

- 소설(小雪) 15일 후 동지(冬至) 전까지의 절기(節氣)로, 양력으로는 12월 7일경이 대설.
- 음력으로는 10월중인데, 눈이 많이 내린다는 뜻임.

(22) 동지(冬至)

- 양력 12월 22일경이 동지의 시작일이고, 음력으로는 11월 중기(中氣).
- 동지는 북반구에서는 태양이 가장 남쪽에 이르는 남지일(南至日)이며, 태양의 남중고도가 1년 중 제일 낮아 밤이 가장 긴 날임.

(23) 소한(小寒)

- 양력으로는 1월 5일경에서 20일경이며, 음력으로는 12월절(十二月節).
- 절후의 이름으로 보아 대한 때가 가장 추운 것 같으나 실은 소한 때가 한국에서는 1년 중 가장 추움.

(24) 대한(大寒)

- 양력으로는 1월 20일경부터 시작되고, 음력으로는 12월 중기(中氣).

2) 세시풍속의 의의

- 주술적인 의례행사가 곧 세시풍속의 초석을 이루게 된 것이고 이것은 세시풍속의 정복

속(占卜俗)이나 조상숭배(祖上崇拜)로 정착됨.

(1) 세시풍속의 점복속

- 세시풍속에 나타나는 점복(占卜) : 일 년 농사의 풍흉을 점복하는 농점(農占)과 사람의 길흉화복을 점복하는 신수점(身數占)과 질병점(疾病占)으로 나타남.
- 농점은 정초에 시작되는데, 민속놀이에 있어서 윷놀이, 줄다리기, 고싸움을 해서 그 승부의 결과로 풍흉을 미리 점침.

(2) 세시풍속의 조상숭배

- 조상숭배 행사 : 설, 한식, 단오, 추석, 시제 등의 행사들.
- 한식날에는 개사초(改沙草)를 하는데 옛날에는 차례도 함께 지냈다고 함.
- 단오일은 1년 중에서 양기(陽氣)가 가장 왕성하고, 조상을 위하는 날임.
- 추석에도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는 풍습이 설날과 같음.

(3) 세시풍속의 형성

-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의 기원 : 고대 농경사회에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도하던 경건한 풍요제의(豊饒祭儀)의 잔존 형식임. (예: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동예의 무천(舞天), 마한의 소도(蘇塗)등)
- 우리나라의 저서 『동국세시기』, 『열양세시기』, 『경도잡지』 등에서 세시풍속을 알 수 있음.

(4) 세시풍속의 계절별 특징

① 봄철

- 신과 조상께 제사를 드리고 복과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점도 쳐보고 놀이도 하며 명절을 맞이한 기쁨과 흥을 마음껏 즐김.

② 여름

-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함.

③ 가을

- 햇곡식과 과일을 사당(祠堂)에 먼저 천신하고 농사에 수고한 농부를 위로하면서 풍작에 감사함. 농악, 탈춤, 민속놀이 등을 즐김.

④ 겨울

- 월동준비를 마치고 1년을 마무리하면서, 풍작에 감사제를 함.

(5) 윤달의 세시풍속

- 윤달 : 음력으로 한 달이 더 붙어난 어느 달로, 윤달이 드는 달은 일정하지 않음. 공달, 공월, 덩달, 여벌달 등 빈달이라 함.
- 윤년 : 윤달이 들어있는 해.
- 태양력에서는 윤달이 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오는데, 11월에는 윤달이 잘 들지 않음.

2. 정월의 세시풍속

1) 설

- 설날 : 1년의 첫날로, 원단(元旦), 세수(歲首) 또는 연수(年首)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설 또는 설날이라고 함.
- 설이란 한자로는 신일(愼日)이라고 쓰며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 한다는 뜻.
- 세찬(歲饌) : 설날 차례를 위해서, 또 세배 오는 손님의 대접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음식.
- 세주(歲酒) : 설날에 먹는 냉주(冷酒)와 제사에 쓰는 송백주(淞栢酒).
- 성묘(省墓) :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 이미 사별한 조상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
- 복(福)조리 : 복(福)을 기원(祈願)하는 풍습.
- 덕담(德談) : 정초에 어른이나 친구를 만났을 때에 따뜻한 말로 서로의 바람을 주고받는 것.

2) 정초의 십이지일

- 십이지일 :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 연초의 보름 동안은 일을 쉬고 한 해를 위한 신성한 제사에 참가하는 기간.
- 무모일(無毛日: 털없는 날) : 12간지에 따라서 털이 없는 동물인 용, 뱀 날인 진, 사일로 설날이 무모일인 때는 흉년이 든다고 함.
- 유모일(有毛日: 털날) : 12간지에 따라서 털 있는 동물인 쥐, 소, 호랑이, 토끼, 말, 염소, 원숭이, 닭, 개, 돼지날인 자, 축, 인, 묘, 오, 미, 신, 유, 술, 해일로 설날이 유모일인 때는 오곡이 잘 익어 풍년이 든다고 함.

3) 대보름

- 정월 15일을 상원(上元) 또는 대보름이라 함.
- 보름 행사는 14일에 시작함.
- 안택(安宅) : 집안에 달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사하는 개인 제사.

(1) 대보름의 음식

① 부럼

- 부럼은 껍질이 단단한 과일을 단번에 깨물어 먹는 것으로 부럼이 재앙을 물리치고 부스럼을 없앤다고 함.

② 귀밝이술

- 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해서 귀밝이술, 이명주(耳明酒), 이청주(耳聽酒), 청이주(聽耳酒) 등으로 부름.

③ 약식

- 대보름날엔 약식(藥食)을 먹어야 좋다고 해서 가정에서는 약식을 만들어 먹음.

④ 오곡밥

- 다섯 가지 이상의 곡식을 섞어 지은 밥.

⑤ 진채식

- 호박고지, 무고지, 외고지, 가지나물, 버섯, 고사리 등 여름에 말려 둔 나물.

⑥ 복쌈

- 밥을 김이나 취에 싸서 먹는 것.

(2) 대보름의 놀이

- 달밤에 사람들이 모여 줄다리기, 석전(石戰), 차전(車戰)놀이, 답교(踏橋), 지신(地神)밧기, 뾰다리밧기 등을 함.
- 지신밧기 : 농민들 사이에 행해지는 일종의 가장(假裝)놀이이며, 지신 밧을 때 "잡귀, 잡신은 물러가고 천복, 만복이 이 집으로 들어 와서 복되게 하라"는 내용의 지신밧기 노래를 부름.
- 석전(石戰) : 돌팔매질을 하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
- 차전(車戰) : 두 편을 나누어 동채에 탄 사람이 동채로 상대편을 공격하여 상대편 동채를 먼저 땅에 닿게 한 편이 이김.
- 답교(踏橋) : 대보름날 밤에 다리[橋]를 밧는 전통적인 민속놀이.
- 뾰다리밧기 : 단장한 젊은 여자들이 공주를 뾰아 자신들의 허리를 굽혀 그 위로 걸어가게 하는 놀이.

(3) 입 춘

- 입춘문(立春文), 춘첩(春帖) : 입춘 날에는 시골이나 도시의 어느 가정에서나 길의(吉意)의 글을 써서 대들보, 기둥, 대문 또는 문판에 붙임.

3. 봄의 세시풍속

1) 삼짇날

- 삼짇날 : 음력 3월 3일.
- 진달래꽃을 따다가 녹두가루와 함께 반죽해서 만들기도 하고, 혹은 붉게 물들여 꿀을 섞어 수전을 만듦.
- 삼짇날에 부녀자들은 아들 낳기를 빌었고 목욕하고 심신을 깨끗하게 함.

2) 청명, 한식

- 청명일 : 한식(寒食) 하루 전이거나 때로는 한식과 같은 날.
- 조상의 묘에 과일과 떡 등을 차려 놓고 한식차례를 지냄.
- 개사초(改沙草) : 조상의 무덤이 헐으면 때를 다시 입히는 것.

■ 정리해봅시다.

1. 십이지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기출문제>

☞ 다음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은? (07'출제)

10간(干): 갑(甲), 을(乙), 병(丙), (㉠),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 12지(支): 자(子), 축(丑), 인(寅), (㉢),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
--

- ① ㉠ 정(丁) - ㉡ 계(癸) - ㉢ 묘(卯) - ㉣ 해(亥)
- ② ㉠ 계(癸) - ㉡ 정(丁) - ㉢ 묘(卯) - ㉣ 해(亥)
- ③ ㉠ 정(丁) - ㉡ 계(癸) - ㉢ 해(亥) - ㉣ 묘(卯)
- ④ ㉠ 계(癸) - ㉡ 정(丁) - ㉢ 해(亥) - ㉣ 묘(卯)

정답 : ①

2. 봄날의 세시풍속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기출문제>

☞ 다음 중 봄날의 세시풍속에 해당되는 것은? (07'출제)

- ① 청명 ② 유두 ③ 중양 ④ 수릿날

정답 : ①

☞ 봄에 조상묘에 떡을 입히고 손보는 일을 뜻하는 말은? (06'출제)

- ① 계육 ② 초복 ③ 개사초 ④ 개자추

정답 : ③

11강 한국인의 식생활 1

▣ 강의목표

- 여름철 세시풍속
- 가을의 세시풍속
- 겨울 세시풍속

1. 여름의 세시풍속

1) 단오

- 음력으로 5월 5일.
- 천중절(天中節), 중오절(重五節), 단양절(端陽節), 또는 수릿날 등으로 불리기도 함.
- 그네뛰기, 씨름대회, 수리취떡, 부적(符籙), 창포물로 머리감기 등을 행함.

2) 유두(流頭)와 복(伏)날

- 유두날 : 음력 6월 15일.
- 유두날에는 맑은 개울을 찾아가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음.
- 유두천신(流頭薦新) : 유두(流頭) 무렵에 수박, 참외 등을 따고 국수와 떡을 만들어 사당에 올려 제사를 지냄.
- 말복 : 하지부터 셋째 경일을 초복, 빗재 경일을 중복, 입추부터 첫째 경일. 이를 통틀어 삼복(三伏)이라고 함.

2. 가을의 세시풍속

1) 칠석

- 음력 7월 7일.
- 견우와 직녀의 전설, 옷과 책을 벌에 말리는 풍습이 있음.

2) 중원

- 7월 15일로 백중일, 백중절 또는 망혼일(亡魂日), 또는 중원(中元)이라고 부름.
- 백중장 : 농촌에서 백중일을 전후해서 서는 시장. 즉 백중 시장이라 함.

3) 추석

- 음력 8월 15일로 가배일(嘉俳日), 중추절(仲秋節), 가위, 한가위라고도 함.
- 우리나라 명절 중 가장 큰 행사.

(1) 추석의 음식

- 햇곡식으로 음식을 만듦 (예: 송편 속에 넣는 콩, 팥, 동부 등 햇곡식으로 만듦)
- 신도주(新稻酒) : 햅쌀로 빚은 술.
- 오리송편 : 햅쌀로 만든 송편.
- 차례 지낼 밥도 햅쌀.

(2) 추석의 놀이

- ① 소놀이 : 2~3명의 사람들이 소모양을 만들고 그 소를 끌고 농악대와 마을 사람들의 행렬은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이나 그 해에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집으로 가서 소를 앞세워 농악을 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뛰놀면 주인집에서는 술과 떡과 찬을 차려다가 일행을 대접하는 것.(거북놀이도 이와 같음)
- ② 강강술래 : 젊은 아낙네와 큰아가씨들이 넓은 마당이나 잔디밭에 모여 손과 손을 잡고 동글게 원을 그리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놀이.

(3) 추석의 풍속

- 올게심니 : 추석(秋夕)을 전후해서 잘 익은 벼, 수수, 조 등 곡식의 이삭을 한 줌 베어다가 묶어 기둥이나 문판에 걸어 두는 풍속.
- 반보기 : 추석을 전후하여 서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 일자와 장소를 미리 약속하고 만나는 부인네들의 풍속.

(4) 중앙절

- 9월 9일을 중구(重九) 또는 중앙(重陽)이라고 함.
- 국화전 : 국화 꽃잎을 따서 찹쌀가루와 반죽하여 단자를 만들어 먹음.

3. 겨울의 세시풍속

(1) 10월 상달

- 상달(上月) : 1년 중 가장 높은 달.
- 10월의 오일(午日)을 말날이라 하여 말을 위한 풍속이 있음.
- 김치 담그기, 만둣국, 강정, 신선로, 난로회 등을 해서먹음.

(2) 동지달

-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 팔죽을 쑤어 먹음.

(3) 선달

- 납향 : 동지로부터 세 번째의 미일(未日)인 납일(臘日)에 그 해에 지은 농사 형편과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신에게 고하는 제사,
- 1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0일을 선달그믐 또는 제석, 제야라고 부르기도 함.
- 묵은세배 : 선달 그믐날 저녁에 사당에 절을 하고, 설날 세배하듯 어른에게 절하는 것.
- 수세 : 선달 그믐날 밤은 집안 구석구석에 불을 밝혀 놓고 밤을 새우는 것.

■ 정리해봅시다.

1. 각 계절별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기출문제>

☞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이 알맞은 것은? (08'출제)

- ① 납향 : 선달 그믐날에 궁중에서 축귀를 위해 벌인 의식
- ② 올게심니 : 추석을 전후해서 잘 익은 곡식의 이삭을 한 줌 베어다가 묶어 기둥이나 문판에 걸어두는 것
- ③ 개자추 : 봄에 조상묘에 떼를 입히고 손보는 일
- ④ 솟대 : 상류주택에서 초현이 드나들 수 있도록 지붕이 행랑채보다 높이 솟아오른 대문

정답 : ②

☞ 다음 중 설명이 알맞은 것은? (08'출제)

- ① 삼재를 면하기 위해 상진일에 용알뜨기를 하였다.
- ② 나례는 선달 그믐날에 궁중에서 행한 축귀 의식을 말한다.
- ③ 봉삼기는 세화 중 대문에 갑옷을 입고 도끼를 들고 서 있는 장군상을 지칭한다.
- ④ 근친은 추석 전후로 친정어머니와 출가한 딸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정답 : ②

☞ 올게심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07'출제)

- ① 백종일에 올리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한 공양물이다.
- ② 추석에 햅쌀로 빚은 술이다.
- ③ 추석을 전후해서 잘 익은 곡식의 이삭을 한 줌 베어다가 묶어 기둥이나 문판에 걸어두는 것을 말한다.
- ④ 추석 전후로 친정어머니와 출가한 딸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정답 : ③

☞ 선달 그믐날 밤 집안 구석구석에 불을 밝혀놓고 밤을 세우는 의식은? (07'출제)

- ① 나례 ② 세찬 ③ 납향 ④ 수세

정답 : ④

☞ 나례는 어느 시기에 궁중에서 행한 축귀의식인가? (06'출제)

- ① 동지 ② 중앙절 ③ 칠석 ④ 선달 그믐날

정답 : ④

12강 한국인의 식생활 II

▣ 강의목표

- 시대별 식품생산과 식생활의 변화
- 종교와 식생활과의 관계
- 지역별 음식의 특성과 음식문화

1. 우리민족의 식문화 관념

- 문화 : 지식, 신앙, 예술, 풍습 등 사회의 구성원으로 배우고 얻은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체.
- 식문화 : 외부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풍토·신앙·풍습 등 내면적 요소가 더욱 녹아든 복합체.
- 음식은 복의 근원, 생존을 위한 절대적, 필수요소, 심리적 충족감을 주는 매체, 사회성을 고양시키는 매체.

2. 한국 식생활의 변천

- 신석기 시대 : 잡곡재배로 농업을 시작.
- 청동기 시대 : 벼와 잡곡, 콩류 등 오곡을 경작.
- 철기 시대 : 벼농사 정착.
- 삼국시대에 : 삼국이 모두 농업국으로서 체계를 갖추어 쌀, 보리, 조, 밀, 콩, 팥, 녹두, 기타 잡곡을 재배하였고 조밥, 보리밥 등을 주식화함.
- 고려시대 : 채소음식과 침채류 발달, 떡 문화, 차 문화, 육미음식 발달, 포(脯)와 절임이 발달, 술이 다양함.
- 조선시대 : 고구마, 고추, 호박 유입되었고 포, 젓갈을 가공함. 반찬음식, 술안주, 떡, 유밀과, 술, 음청류(飲淸類) 죽요리가 크게 개발.
- 조선말기부터 현재 : 1970년대 가정가공 식품이 공장생산으로 이관되면서 발달. 1990년대에 외래식품, 외래음식이 급격하게 다면적으로 도입.

3. 한국인의 식문화와 식생활

1) 한국 식문화의 특성

- 사계절의 자연환경으로 벼농사가 1위의 생업이 됨.
- 다양한 곡물의 조리 가공법 발달.
- 곡물의 상용화(常用化)와 발효성(醱酵性)식품의 개발. (김치, 콩, 간장, 된장 등)
- 일상식(日常食) 주부식 분리형(主副食 分離形) : 밥을 주식으로 하고 반찬을 부식으로 하여 차린 주식과 부식 분리의 유형.
- 반상차림 : 좌식(坐食) 차림.

2) 밥과 김치

(1) 벼농사의 도입과 밥

① 벼농사의 도입 : 잡곡재배로 농업을 시작한 이후 B.C.1000년경에 이미 벼농사와 잡곡 및 콩류까지 오곡이 혼합재배 되고 있음.(유적)

② 밥

- 시기 : 벼농사를 지으며 정착생활을 하고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할 무렵.
- 철로 만든 솥이 보급되면서 장시간 국물을 가열할 수 있게 되었고, 쌀농사가 보급되어 덜 여문 국물을 얻게 되면서 밥짓기가 가능케 됨.

(2) 김치

① 김치문화의 형성과 발달

- 삼국시대 중기 이후 정착농업의 안정으로 밥을 주식으로 하게 되면서 나타남.
- 김치는 배추, 무, 오이, 열무, 파 등과 같은 채소류 등을 식염에 절인 후 여러 가지 부원료를 첨가하여 발효숙성 시킨 것.
- 16세기말 고추가 새로이 유입되면서 17, 18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오늘날과 같은 김치로 발전.
- 19세기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김장용 통배추 재배에 성공.

3) 지역별 음식문화

- ① 서울 : 궁중의 음식문화가 최고로 발전. 별미음식으로는 설렁탕, 장국밥, 열구자탕(신선로), 탕평채 등.
- ② 경기도 : 쌀이 발달. 별미음식으로는 수원의 쇠갈비구이, 조랭이 떡국, 무짬, 흥해삼, 편수 등과 약과·경단·주약 등의 병과류를 만드는 개성음식이 있음.
- ③ 충청도 : 농업이 주가 되는 지역이므로 쌀·보리·고구마·무·배추·목화·모시 등이 발달. 별미음식으로 어리굴젓, 울갱이국, 황복과 웅어로 만든 음식, 늙은 청동호박 속에 꿀을 넣어 증탕하여 만든 호박꿀단지 등이 있음.
- ④ 강원도 : 감자, 강냉이, 메밀, 도토리 등 주식으로 하였고 구황식품이 발달. 강원도의 별미음식은 국수·수제비·범벅·송편 등과, 메밀막국수, 도토리 묵, 생선음식 등.
- ⑤ 전라도 : 콩나물무침, 고추장, 죽이 보양식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 별미음식은 추자도 멸치젓·낙월도 백하젓·함평 병어젓·고흥 진석화젓·여수 전어밤젓·영암 모치젓·강진 꿀뚜기젓·무안 등의 젓갈류와 부각, 전주비빔밥, 흥탁삼합 등.
- ⑥ 경상도 : 해산물과 회를 국이나 찜, 구이하여 먹음. 별미음식은 진주비빔밥과 마산 미더덕찜, 안동 식혜·헛제사밥과 같은 안동 음식, 동래 파전, 재첩국, 추어탕 등.
- ⑦ 제주도 : 어류와 해초가 많이 쓰이며 된장으로 맛을 냄. 별미음식으로는 달래와 마늘·파를 넣고 간장으로 간하여 담백하게 끓이는 국인 드룻마농(들의 마늘)이 있으며 자리물회, 옥돔 음식, 전복죽, 해물 떡배기 등이 있음.
- ⑧ 황해도 : 별미음식은 남매죽, 밀다갈범벅, 송가기탕, 냉공국, 행적, 돼지족조림 등.
- ⑨ 평안도 : 겨울에 냉면, 여름에는 어복쟁반이 유명. 별미음식은 만두, 어복쟁반, 내포종탕, 되비지, 순대, 노티(놋치) 등이 있음.
- ⑩ 함경도 : 별미 음식은 회냉면, 가릿국, 가자미식해, 동태순대, 콩부침 등.

13강 한국인의 주생활

■ 학습개요

- 우리나라의 주거변천
- 주거생활사의 특성
- 한옥의 특징

1. 한국 주택과 주생활의 변천

1) 원시시대와 고조선시대

- 구석기 시대 : 약 10만 년 전, 평면윤곽이 대략 부정형의 30-40㎡ 크기로, 한쪽 구석에 큰 돌 더미가 있고 주변에는 차돌조각, 차돌석기들이 널려 있음.
- 모계를 중심으로 여성이 살림의 중심 단위였으며 집단 노동의 공동생산에 의존.
- 신석기 시대 : 기원전 4천 년 경부터임. 집자리는 원형에서 말각(抹角)방형, 타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바뀌었고 말기에 이르러 직사각형 모양임.
-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 정착생활을 하였고 생활단위 및 모든 생산 활동 전반에서 여성이 하는 역할이 컸음.
- 신석기 시대 후기에 남성의 역할이 커짐.
- 청동기 초부터 초기 철기 시대 : 원시 농경시대로 집자리는 직사각형으로 대형화됨.
- 취사, 난방, 조명 등의 기능을 하는 화덕을 둠.
- 두세 가족이 모여 살았던 것으로 추정됨.
-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데, 계급사회로 움집, 귀틀집, 고상(高床)주거가 있었음.
- 움집 : 주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반지하 가옥.
- 귀틀집 : 지름 15cm 되는 통나무를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삼은 집.

2)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1) 고구려

- 난방방식.
- 발방아간, 용드레우물, 부엌, 육고, 마차고, 외양간 등이 있었고 소반, 접시, 시루, 물동이, 향아리 등 그릇류를 씀.

(2) 백제

- 대계 산에서 살았다고 전해짐.
- 백제의 기와, 벽돌 공예가 높은 수준에 있었음.

(3) 신라

- 상류주택 : 기와지붕 사용.
- 금입택(金入宅) : 옥사(屋舍)에 금드리를 한 화려한 주택이 있었음.
- 옥사 제한령 : 계층에 따라 허용되는 집의 크기와 장식을 다르게 함.

3) 고려시대

- 집을 사고팔기도 함.
- 가옥의 사유 재산권은 있었으나 토지가 국가 소유라서 필요에 따라 백성의 집은 마구 헐릴 수 있었음.
- 일반 민가는 움집 형태였음.

<참고>

- 온돌 : 아궁이에서 불을 때면 화기(火氣)가 방밀을 지나 방바닥 전체를 덥게 하는 난방 장치.

(4) 조선시대

- 신분제에 따라 가대(家垜), 가사(家舍), 장식(裝飾)에 대한 제한이 있음.
- 성종 대에서 중종에 이룰수록 점차 높고 큰 집을 만듦.
- 지방 호족도 집의 규모와 장식을 규제를 뛰어넘어 건축을 함.
- 서인(庶人) 이하는 상한선인 '서인 10칸 내 누(樓)삼칸'도 짓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 조선 후반기의 주택은 부계 친족 체계의 상징.
- 가부장, 장자가 거처하는 사랑채와 종부, 장자부가 거처하는 안채가 각기 기능을 달리함.

(5) 조선 말기부터 현재까지

- 신분제의 해체로 가사(家舍)규제가 없어짐.
- 경제력 있는 중인 계급을 중심으로 주택을 과감히 확장하거나 솫을대문을 달고, 일부 사당을 목욕간으로 개축함.
- 개화기에는 다층 주택이 발전.
- 1920년대는 서민들 주택은 지붕틀, 부연, 상류주택을 모방함.
- 1941년 임대와 분양 주택 건설이 발전.
- 1950년대 아파트 건설되었고 1970년대 아파트 형식이 정착됨.

2. 한옥의 특성과 주생활

1) 한옥의 열림과 닫힘

- 전통주택의 문이나 창틀은 틈이 있음 → 환기를 조절해주는 역할.
- 부엌의 출입문이나 대청뒤편의 문은 판장문(板牆門)과 같은 두꺼운 문을 설치.
- 대청에는 들어열개문을 설치.
- 벽과 문과 창의 어울어짐은 여름철에 열어 놓으면 개방성을 느낄 수 있고 시원하며, 겨울철에는 창과 문을 닫아 놓으면 폐쇄성과 아늑함을 느낄 수 있음.

- 분합문(分閤門)은 들어열개문으로써 공간을 완전히 분리, 통합시킴.

2) 한옥의 안과 밖

- 한옥의 배치는 풍수지리설이 작용 → 주택은 뒤가 높고 앞이 낮은 대지에 배치.
- 각 공간들은 바닥의 높낮이로 위계성을 보여줌.
- 풍수는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땅에 관한 자연이치를 설명하는 이론.

<참고> 음양오행(陰陽五行) : 우주나 인간의 모든 현상을 음·양 두 원리의 소장(消長)으로 설명하는 음양설과, 이 영향을 받아 만물의 생성소멸(生成消滅)을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변전(變轉)으로 설명하는 오행설을 함께 묶어 이르는 말.

<참고> 풍수지리(風水地理) : 산세(山勢) · 지세(地勢) · 수세(水勢) 등을 판단하여 이것을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에 연결시키는 설.

3) 한옥의 낮과 밤

- 유교사상이 한옥에 영향을 미쳐 주택 내에서 장남의 작은 사랑이 아버지가 사용하는 큰 사랑 옆에 배치됨.
- 상류주택은 주거내의 건물과 공간들이 높은 담장으로 가림.
- 하인들의 생활영역과 안채, 사랑채와 같은 주인의 생활공간은 담장과 문으로 막아 격리시킴.
- 대가족제도였으므로 한옥은 담으로 둘러싼 여러 개의 채(사랑채, 안채, 안사랑채, 행랑채, 별당)로 구성됨.

4) 한옥의 허(虛)와 실(實)

- 5실 5허 : 집에 5실이 갖추어지면 부귀하게 되고, 집에 5허가 있으면 곤궁하고 패가한다는 것.
- 5실 5허는 곧 서민들의 가치관으로 정착되어서 서민들의 집 담을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작고 낮았음.
- 담벽이 단단할수록 실(實)하게 여김.

5) 한옥의 따뜻함과 시원함

- 온돌은 열의 전도, 복사, 대류를 이용한 한국 고유의 난방방식.
- 서민주택에서는 온돌 흙바닥에 대자리나 샛자리 등을 깔음.
- 상류주택의 온돌 바닥은 안전하고 보기에 아름답도록 마감함.
- 마루는 시원한 여름철 생활공간의 목적으로 쓰임.

6) 한옥의 강함과 약함

(1) 사랑채

- 사랑채에는 사랑방, 대청과 누마루, 침방과 서고, 그리고 사랑마당으로 구성됨.
- 주인의 일상 거처일 뿐만 아니라 내객의 접대 및 문객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

- 사랑마당에는 몇 그루의 나무를 심고 괴석(怪石)이나 석함(石函)을 담장 밑에 배치.

(2) 안채

- 사랑채에서 중문을 통과하면 안채에 이르게 되는데 사랑채에서 직접 시선이 닿지 않도록 내외당을 돌아서 들게 되어 있음.
- 내외당은 시각적인 차단이 중요.
- 안채에는 안방과 건넌방, 안대청과 부엌, 곳간이 있음.
- 사당은 대체로 안채의 안대청 뒤쪽이나 사랑채의 뒤쪽 제일 높은 곳에 마련됨.
- 한옥의 관념적인 구조는 안으로 들어올수록 안방>안마당>중문>사랑방>사랑마당>행랑마당>대문의 순으로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에서 외부사람에 이르기까지 드나들 수 있는 한계가 확대됨.
- 물리적 구조물은 밖으로 나갈수록 견고하며 바깥담>행랑채> 중간담>사랑채>안채>안방의 순으로 약해짐.
- 한옥의 강건함과 약함, 관념상의 개방성과 폐쇄성을 보완했던 것이 유교윤리에 바탕을 둔 예(禮)의 구조임.

■ 정리해봅시다.

1. 한옥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기출문제>

☞ 다음 중 한옥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08'출제)

- ① 부엌의 출입문이나 대청 뒷면의 문은 드나들기 쉽게 분함문으로 만들었다.
- ② 한옥의 문이나 창틀은 전혀 틈이 없도록 정교하게 만들었다.
- ③ 한옥의 배치는 풍수지리설을 적용하여 주택의 앞, 뒤가 차이지지 않고 평평하도록 설계되었다.
- ④ 한옥은 여러 개의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간마다 상이한 공간정서를 느끼게 한다.

정답 : ④

☞ 다음 한옥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7'출제)

- ① 집의 구조에 있어서 한옥의 문이나 창틀은 적당한 틈을 갖고 있다.
- ② 한옥은 기(氣)의 소통을 강조하기에 문과 담벽은 낮고 얇게 만들었다.
- ③ 한옥은 공간 내 통일성을 강조하여 여러 개의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각 공간마다 동일한 정서를 느끼게 한다.
- ④ 부엌의 출입문이나 대청 뒷면의 문은 분함문으로 처리하였다.

정답 : ①

2. 한옥의 특성 중 허(虛)와 실(實)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기출문제>

☞ 한옥의 허(虛)와 실(實)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7'출제)

- ① 휴식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집터에 비해 집을 작게 짓는 것을 선호하였다.
- ② 안과 밖이 차단되는 것을 막고자 담을 두텁고 높게 짓는 것을 경계하였다.
- ③ 집은 크고 문은 작은 것을 선호하였다.
- ④ 하수구는 북서쪽으로 흐르는 것을 선호하였다.

정답 : ③

14강 한국의 가정문화·공동체 문화 I

■ 강의목표

- 가신신앙의 성격과 형태, 특징
- 가신신앙의 연속과 단절
- 동제의 기능과 의의
- 동제의 명칭과 구조적 성격

1. 세시풍속의 의미

1) 가신신앙의 성격

- 가신신앙 : 공간적으로 집안에 존재하는 신적 존재들에 대한 신앙.
- 다신다령교적(多神多靈教的)인 성격.
- 신앙의 대상이 가정단위로 한정.
- 신앙 장소의 범위와 한계를 한 가정의 생활공간으로 함.
- 주로 주부가 사제자가 됨.

2) 가신신앙의 종류

- ① 안방을 주로 한 조상령(祖上靈)
- ② 안방을 주로 한 삼신 : 아기를 점지하고 산모와 산아(産兒)를 돌보는 세 신령
- ③ 마루를 주로 한 성주신 : 가옥의 수호신.
- ④ 부엌의 조왕신(祖王神) : 자손의 명과 복을 위하여 부엌에 위치하는 신.
- ⑤ 뒤곶의 택지신 : 집안이 평안하기를 빌고 풍작, 가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신.
- ⑥ 뒤곶의 재물신 : 집안에 업이 들어오면 가운이 성하고, 반대로 업이 나가면 가운이 망한
다여김.
- ⑦ 출입구의 문신 : 문을 지키는 신.
- ⑧ 뒷간의 변소신들
- ⑨ 우물·샘의 용신
- ⑩ 안택·고사 기타 신앙형태들

3) 안택과 고사

- 고사 : 추수 뒤에 지내며 감사제의 성격.
- 안택 : 정월에 지내며 새해에 한 해 동안의 집안의 평화를 빈다는 의미.

2. 마을 공동체 신앙

1) 동제의 기능과 의의

(1) 마을의 구심점 : 심리적 단합과 유대

- 동제 :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풍요로워지기 위한 공동제의.

- 마을공동체 신앙 : 같은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믿음의 형태.

(2) 마을공동체신앙의 축제적 성격

- 동제는 마을(洞)과 제의(祭)를 결합시킨 것으로 마을공동체가 단위가 되어 행하는 주기성이 있는 연례적 종교적 의례.

2) 동제의 원리와 제사조직

(1) 자연원리

- 동제는 마을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등 삼라만상을 위한 제사.
- 마을 사람들은 제사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음.

(2) 동제를 주재하는 조직

- 주로 제관을 정하고 제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노인들이 중심을 이루며, 동제의 경비나 접대 등에서 청년회가 중심이 됨.

3) 동제의 명칭과 구조적 성격

(1) 동제의 명칭

- 동제 또는 동신제(洞神祭) : 음력 2월이 되면 마을을 지켜주는 신에게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제사하는 공동제의.

(2) 동제의 역사

- 고대의 제천의식 : 하늘에 감사하는 국중대회로서 연일 음주·가무를 한 것으로 보아 오늘날 규모가 큰 동제와 비슷함.

(3) 동제의 목적

- 사람이나 가축이 무병하고, 우순풍조(雨順風調)하여 풍어·풍농이 되기를 빚.

(4) 동제의 절차

- ① 제일(祭日) : 정월 14일 밤에 지냄.
- ② 제관 : 동제 7일 전이나 15일 전에 동회를 열어 마을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제관을 선출.
- ③ 금기사항 : 제관들은 제일(祭日)이 될 때까지 바깥출입을 금하고 음식을 가려 생선과 육류를 먹지 않으며, 부부가 한 방에 들지 않으면서 언행을 조심함. 마을 입구에도 금줄을 치고 황토를 퍼 외부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킴.
- ④ 제물 : 메·주·과·포·탕·떡(백설기)에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씬.
- ⑤ 제의 : 제사의식

4) 마을 곳으로서의 동제

- 마을 곳 : 자연을 바탕으로 삶의 근거를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 한 해 동안 마을이 평안

하고 건강하며 생업이 번성하게 해달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행하는 집단적인 무속의례.

5) 솟대와 장승이 있는 마을

- 마을의 경계가 되는 곳이나 중심지에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곳에 신을 모시고 형태는 나무와 돌로 상징하여 성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표현함.

(1) 솟대와 마을신앙

① 솟대의 의미와 유형

- 솟대 :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장대나 돌기둥 위에 얹힌 것으로 마을의 신앙 대상물.
- 지역이나 목적에 따라 소줏대·표줏대·솔대·거릿대·수살목·서낭대·짐대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음.

② 다양한 솟대의 위치

- 솟대가 세워지는 곳은 대체로 마을 입구.
- 사방의 입구에 짐대와 솟대를 세우기도 하고, 입구와 뒤쪽 모두에 세우기도 함.

③ 솟대신앙의 기능

- 장승의 벽사 기능을 보강, 보조하여 솟대의 장대 자체로서 잡귀를 막아 주며, 솟대의 새 로 하여금 풍년을 보장하는 농경신의 구실을 함.

(2) 장승과 마을신앙

- 장승 : 민간신앙의 한 형태로 마을 입구나 길가에 세운 목상(木像)이나 석상(石像).
- 장승은 마을의 수문신·수호신, 사찰이나 지역 간의 경계표, 이정표 등의 구실을 함.

① 장승의 종류

- 장승의 재료 : 나무와 돌.
- 장승의 종류 : 목장승과 석장승, 복합장승 등이 있음.
- 장승은 대부분 남녀 한 쌍을 세움.

② 장승의 기능

- 마을장승 : 동제의 신으로서 마을수호와 벽사·귀신 물리치기·재액방지의 기능.
- 사찰장승 : 절의 경계표시와 사찰수호의 기능.
- 공공장승 : 이정표 겸 거리 신으로 성문과 길과 해운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

③ 장 승 제

- 장승제 : 마을 수호신인 장승에게 지내는 동제의 하나.

④ 장승의 현대적 변형

- 마을의 기원은 질병을 막거나 풍년을 기원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으로 변화.
- 장승에 새기는 명문도 마을 이름 등을 새기면서 마을 수호의 기능보다는 마을을 안내하

거나 전시하는 효과를 보려고 함.

6) 동제의 현황

(1) 동제 쇠퇴의 배경

- ① 사회의 이질화 : 마을이 이질화되면 동제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게 됨.
- ② 과학사상의 보급 : 근대적 교육이 보급되면서 민간신앙을 비과학적이라고 인식하게 됨.
- ③ 종교적 압력 : 동제를 부정하는 종교적 입장이 있음.
- ④ 정부의 시책 : 정부의 미신타파정책으로 동제를 미신으로 간주하여 자의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폐지함.
- ⑤ 가치관의 혼란 :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하여 동제를 지탱하던 전통적 의식이 무너짐.

(2) 동제의 창조적 계승

▪ 동제가 부활되는 이유

- ① 마을에 좋지 못한 일이 자주 발생하여 동제를 다시 모시게 되는 경우
- ②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차원에서 복원되는 경우

■ 정리해봅시다.

1. 가신신앙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기출문제>

☞ 다음 중 가신신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08'출제)

- ① 각별한 윤리관을 강조한다.
- ② 업(業)은 재물과 관련된 가신으로 집안에 업이 들어오면 가운이 망하고 업이 나가면 가운이 성한다고 생각하였다.
- ③ 공간적으로 집안에 존재하는 신적 존재들에 대한 신앙이다.
- ④ 남성이 주가 되고 형식성, 이념성, 논리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정답 : ③

☞ 가신(家神)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07'출제)

- ① 업(業)은 재물신으로, 구렁이, 족제비, 두꺼비 등을 그 실체라고 여겼다.
- ② 조왕은 최고의 가옥 수호신이다.
- ③ 삼신은 일(日), 월(月), 성(星) 세 신을 말한다.
- ④ 터주는 변소귀신으로, 신경질적인 젊은 여신으로 생각하였다.

정답 : ①

2. 조령신앙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출문제>

☞ 다음 중 조령신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08'출제)

- ① 조령신을 안치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마루라는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 ② 조령신을 위한 제(祭)는 가장에 의해 진행되는데 엄격한 격식이 강조된다.
- ③ 조령신앙은 가신신앙 중 유일하게 유교적 영향으로 시작되었다.
- ④ 조령신앙은 가내의 평안과 풍작,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 ④

☞ 조령신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07'출제)

- ① 조령신을 위한 제(祭)는 가장(家長)에 의해 진행된다.
- ② 조령신을 위한 제(祭)는 엄격한 격식을 갖추어서 진행된다.
- ③ 조령신을 안치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안방이라는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 ④ 조령신앙은 가신신앙 중 유일하게 유교적 영향으로 시작되었다.

정답 : ③

15강 한국의 가정문화·공동체 문화 II

■ 강의목표

-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성격
- 무당의 유형과 굿의 종류
- 무속제의 특징
- 무속의 사고체계와 종교적 기능

1. 한국 무속신앙의 성격

- 무속 : 민간의 사고가 집약되어 무당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종교현상.
- 때로 무속신앙은 많은 외래종교와 융화하기도 하였고, 미신이라는 차별을 받기도 하였으나, 무속신앙은 다른 종교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
- 고등종교와 민간신앙 사이의 상호보완적인 기능 담당.

2. 무당의 유형

1) 강신무 : 신령이 몸에 들어서 무당노릇하기

(1) 강신무의 특징

- 신이 몸에 깃들여 있으므로 몸주신을 모시고, 무당의 집에 반드시 신당을 차리고 그 신을 경배함. 극진한 대접을 함.
- 강신무의 굿에서 발견되는 특징 : 신의 의사를 전하는 신탁인 공수를 하는데 이는 1인칭의 관점에서 반말로 함.

2) 세습무 : 집안 대물림으로 무당 노릇하기

(1) 세습무 사제권의 계승

- 세습무 : 인간을 대신해서 신에게 인간의 뜻을 전하고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기원함.
- 여성은 무속의례를 거행하는 사제자 기능을 수행, 남성은 무속의례의 음악을 맡아서 바라지 노릇을 함.
- 단골판 : 세습무 집단은 자신들의 신앙적 판도와 권역을 마을 단위로 갖음.
- 세습무 집단은 마을 단위의 단골판을 갖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마을과 마을 단위의 통합적인 단골판을 지니고 이러한 단골판은 세습됨.

(2) 세습무의 쇠퇴

- 세습무 집단은 오늘날 거의 없어지고 전국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수만 잔존형태로 남아 있음.

3. 굿의 종류

1) 집 굿

- 개인의 집에서 하는 곳.

(1) 재수굿, 축원굿

- 집안의 재수와 소망을 기원하는 이유에서 하는 곳.

(2) 우환굿

- 집안에 근심과 걱정이 생겨서 이를 퇴치하고자 하는 곳.

(3) 병굿, 치병굿

- 집안에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위해 하는 곳.

(4) 사령굿

-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곳.
- 지역에 따라 오귀굿·오구굿·씻김굿·소상씻김굿·망자굿·새남굿·무흔굿 등으로 부름.
- ① 진오귀굿, 진오귀새남 : 사람이 죽은 뒤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하는 곳
- ② 마른오귀굿 : 사람이 죽은 지 오래 되어서 하는 곳
- ③ 곱머리씻김굿 : 망자의 시체 옆에서 또는 관 옆에서 하는 곳
- ④ 사흔씻김굿 : 처녀 총각으로 죽은 사람을 서로 맺어 혼인을 할 때에 하는 곳
- ⑤ 생오귀 : 살아생전에 좋은 곳으로 नी이 가기를 기원하는 곳.

(2) 마을 굿

- 마을 굿은 동네 굿이라고도 함.
- 마을 굿에서는 마을 수호신의 내력을 말하고, 마을수호신의 영험에 의해서 개인의 복락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함.

(3) 고을 굿

- 여러 마을이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굿.
- 고을 : 현이나 군 단위 이상의 고장.

4. 무속의 제의

1) 제의의 종류와 목적 : 의례규모에 따른 분류

(1) 비 손

- 손비빔, 비념이라고도 하는데 식구 중 먼 길 떠난 사람이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할 때나 부부사이가 원만하지 못할 때 많이 행함.

(2) 고사와 푸닥거리

- 고사 : 10월 상달에 환자가 생겼다거나 경제 형편이 갑자기 나빠졌을 때 이런 나쁜 일은 잡귀가 범접한 탓이라고 믿고 잡귀를 쫓아내는 의례.
- 고사나 푸닥거리를 할 때 무당이 두어 명 와서 장구나 제금 같은 악기를 울리고 간간이 춤도 추면서 신에게 인간의 소원을 고향.

(3) 굿

- 무속 의례 가운데 규모가 크고 중요한 의례는 큰굿, 곧 굿임.
- 굿은 신에게 바치는 많은 음식과 술, 옷, 지전 장식 따위를 벌여 놓고 신을 청하여 신나는 음악 연주에 무당의 춤, 노래, 축원, 촌극, 묘기, 재담들이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의례.

2) 제의의 형식 : 굿의 기본구조

(1) 청신 과정(請神過程) : 해당신을 굿에 청하기

- 굿을 하려면 반드시 신을 청해 와야 하는데 신들은 모두 깨끗한 것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굿하는 장소를 깨끗이 하고, 부정을 물리는 절차를 함.
- 굿당이 깨끗해지면 비로소 신을 청해 들임.

(2) 가무오신과정(歌舞娛神過程)

- 청해 온 신은 가무로 즐겁게 하고 대접함.
- 오신의 뒤에 인간의 소원을 빌어 마침내 도와주겠노라는 대답을 들음으로써 신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굿의 목적임.

(3) 신의청취과정(神意聽取過程)

- 초청된 신이 무당에게 내려 공수로 신의 의사를 인간에게 전달함.

(4) 송신과정(送神過程)

- 굿에 초청된 신을 돌려보내는 것.

3) 제의 장소

- ① 신단 : 무가 개별적으로 그의 집에 신을 모시는 경우.
- ② 신당 : 마을의 수호신이 봉안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행하는 마을의 동신제를 올리는 제의 장소.
- ③ 민가 : 민가의 신단은 그 집에서 굿을 할 때 설치되는 제의 장소.

4) 무의 제의 양식과 절차

(1) 성주봉안의식

- 성주신을 집안에 새로 봉안하는 제의 절차.
- 집을 새로 지었거나 이사하여 새집에서 수호신으로 성주를 모실 필요가 있을 때에 함.

(2) 지노귀 굿[넋 굿]

-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천도하는 굿.
- 넋 굿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삶과 죽음이 화해하는 의례.
-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보내는 기능과 산사람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기능을 함.

4) 무속의 사고체계

- 무당이 되는 시초에 신병을 통하여 내리는 신의 체험은 무당의 신관·우주관·영혼관·내세관을 구체화시킴.

(1) 신관

- 다신적이며 자연신관이며 신의 실재를 믿어 신이 만물 존재 운행의 전능자로 믿음.

(2) 우주관

- 무속에서 보는 우주는 천상·지상·지하로 구분.
- 낙원은 극락·저승이고, 지옥은 지하계의 형장으로 영원히 형벌이 계속되는 곳.

(3) 영혼관

- 무속에서는 인간을 육신과 영혼의 이원적 결합체로 봄.
- 영혼은 형태가 없는 기운으로서 인간 생명의 근원이며,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내세인 저승으로 들어가서 영생한다고 믿는 불멸의 존재임.

(4) 내세관

- 무속에서는 내세가 극락과 지옥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믿음.

(2) 무속의 종교적기능

- 사람들의 정신적인 불안을 해소, 마음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함.
- 무속이 민간층의 기층 종교로 자리 잡고 있는 원인 : 무속이 고대로부터 민족 종교의 기반을 갖고 생활을 통해 전승되고 있는 역사성과 불교, 유교, 기독교 등의 외래 종교가 삼국시대부터 계속 밀려 들어왔지만 민간인의 의식 구조와는 별개의 종교적 차원에 있었기 때문임.

■ 정리해봅시다.

1. 무당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기출문제>

☞ 다음 중 설명이 알맞은 것은? (08'출제)

- ① 허주굿은 강신이 된 무당에게 신령이 제대로 들어온 것인지 판별하는 절차이다.
- ② 세습무는 굿 과정에서 공수를 한다.
- ③ 강신무는 마을 단위의 단골판을 갖고 있다.
- ④ 내림굿은 세습무가 처음 공식적인 무당으로 데뷔하는 굿이다.

정답 : ①

☞ 다음 중 굿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07'출제)

- ① 세습무는 오신 과정에서 공수를 한다.
- ② 굿은 청신과정-가무오신과정-신의청취과정-송신과정으로 되어있다.
- ③ 강신무는 세습무에 비해 굿의 예술적 세련도가 뛰어나다.
- ④ 집 굿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당굿이다.

정답 : ②

☞ 세습무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06'출제)

- ① 내림굿을 통해 공식적으로 무당이 된다.
- ② 굿 과정에서 공수를 한다.
- ③ 몸주신을 모시고 있다.
- ④ 단골판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앙적 판도와 권역을 갖고 있다.

정답 : ④

2. 무속의 사고체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기출문제>

☞ 다음 중 무속의 사고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08'출제)

- ① 무속의 신관은 유일신적이며, 신을 공포의 대상으로 본다.
- ② 무속에서 보는 우주는 천상과 지상으로 구분된다.
- ③ 무속의 내세관 속에는 사후세계에 대한 종교적 구원 관념이 강하다.
- ④ 무속에서는 인간을 육신과 영혼의 이원적 결합체로 본다.

정답 : ④

☞ 무속의 사고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06'출제)

- ① 무속에서는 인간을 수호해주는 선신일지라도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 ② 무속에서 보는 우주는 천상, 지상, 지하로 구분된다.
- ③ 무속의 신관은 유일신적이며, 무신은 인간에게 어떤 이성적인 계시를 통해 그 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 ④ 무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으로부터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게 한 근원지인 저승으로 돌아간다는 순환의 원리로 본다.

정답 : ③

3. 무속신앙의 용어를 정리해 보세요.

<기출문제>

☞ 다음 중 용어에 대한 설명이 알맞은 것은? (08'출제)

- ① 동맹 : 고구려의 계절 제의
- ② 도당굿 : 죽은 사람의 넋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하여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굿
- ③ 뇌옥 : 겨울용 주거
- ④ 장갱 : 고상의 귀틀집

정답 : ①

☞ 다음 중 용어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07'출제)

- ① 명두- 무당이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는 청동제 거울
- ② 공수- 무당이 신을 즐겁게 하는 과정
- ③ 부경- 고상식으로 지은 여름용 주거
- ④ 장갱- 고상의 귀틀집

정답 : ①